

광주시·전남대·조선대,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

인공지능·웰에이징 인재양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전남대 AI인재 2만명·창업 200개사 육성 목표
조선대-조선간호대 글로벌인재 5000여명 양성
시, 5년간 4700억 투입…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광주시와 전남대·조선대·조선간호대학교가 인공지능(AI)과 웰에이징 등 특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와 전남대·조선대·조선간호대학교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광주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을 지향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지난 9월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는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대는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대학'을 비전으로, AI융합 교육센터·AI융합연구원·글로벌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융합 인재 2만명 양성, 창업기업 200개 육성, 유학생 5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대는 '웰에이징 아시아(Asia) 넘버원(No.1) 대학'을 비전으로, 웰에이징벨리 구축, 웰에이징 기술융합원, 글로벌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며 웰에이징 특화인재 1만명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 200개 육성, 글로벌 인재 5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5년간 4700억원을 투입해 정주형 교육,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광주를 만들고, '대학·지자체 동반혁신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으로 어떤 기업도 '광주에 인재가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학·기업이 손을 맞잡고 광주를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완성하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광주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겠다"고 말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전남대는 인공 지능 융합교육과 글로벌 학습 환경을 확대

하고 광주시의 'AI 수도' 비전과 연계해 지역의 AI 기반 산업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전 생애 웰에이징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국제 교육·연구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당 '1인 1표제' 개정안 논란 속 당무위원회 통과

중앙위 28일→내달 5일 연기
"우려 수용해 보완책 논의"
확정 앞두고 잡음 진화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강화'에 방점을 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

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의결을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우려 의견이 속출하자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예정보다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안과 추진 절차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최고위원,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취지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총본한 속의 없이 진행한다는 비판론이 잇따랐고, 회의장 밖까지 고성이 들렸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정 대표의 대표직 재선을 염두에 두고 강행된 것이거나 경복 등 소외 지역의 당심을 반영할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다 수용

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요 제도를 총본한 속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의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정 대표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며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져본 소송'을 제기하자는 연방장까지 돌리고 있다.

전날 강득구·윤종균 의원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졸속'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한 각 지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 부분 취합돼 특별한 가감 없이 당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당원들이 요구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싼 반대론이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당원 주권'의 대체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에서 반대 의견에 좌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반드시 해낸다' 정준호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현장에서 만난 주민 목소리 담아 정책으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 갑·사진)의 '2025년 의정보고회 1차(두암동·문화동·석곡동·풍향동)'가 지난 22일 시화문화마을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주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북구갑 주민들과 그간의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의정보고회는 축사, 의정활동 영상 시청, 정준호 의원의 의정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연결했던 골목형 리스너 프로젝트의 연장선, '경청노트 캠페인'의 운영 성과를 간략히 보고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준 주민들과 참여 소회를 함께 나눴다.



정준호 의원

이어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6건의 상법 개정안 발의, 광주 미래산업 AI 모빌리티 예산 정부안 반영, 광주 송정역 인근 개발·증축, 호남선 KTX 증편 대책, 북구 수해 복구 및 방재 대책 마련, 광주역 인근 노후 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의정보고회는 축사, 의정활동 영상 시청, 정준호 의원의 의정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연결했던 골목형 리스너 프로젝트의 연장선, '경청노트 캠페인'의 운영 성과를 간략히 보고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준 주민들과 참여 소회를 함께 나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노무현 지방자치학교, 봉하마을서 수료식

노무현 정신 실현…지방자치 리더 양성 기틀 마련

노무현재단이 광주지역위원회(상임대표 김삼호)가 주최하고 광주노무현시민학교(시민학교장 차승세)가 주관하는 '2025 노무현 지방자치학교'가 지난 22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수료 워크숍을 끝으로 총 6주간 8강의 모든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총 113명이 지원해 서류 전형을 거쳐 33명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이 중 70%가 넘는 인원이 수료해 높은 열의와 충실한 학습 분위기를 보여줬다.

이번 지방자치학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지역사회 리더, 공직선거 출마 희망자, 보좌진, 활동가 등 지방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실천형 정책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사진으로 차승수 노무현재단 이사장(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전 금천구청

장), 김삼호 광주노무현재단 상임대표(노무현 정부 인사행정관·전 광산구청장), 이광재 노무현재단 이사(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전 강원도지사), 박진우 전 제주노무현재단 상임대표(노무현 정부 국정과제행정관), 박병계 국회의원(전 법무부장관) 등 다양한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 행정, AI, 사회, 문화 전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강의를 펼쳤다.

차승세 시민학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주권·자치분권 철학을 현실의 정책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자치학교의 목표였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지역리더를 양성할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노무현시민학교는 향후에도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역 의제 연구 모임, 정책 스터디, 후속 워크숍 등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임지락 전남도의원, 29일 출판기념회

'Redaer & Leader 행동하는 사람 임지락의 질문들'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사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정치와 삶, 지역의 미래를 성찰한 책 'Redaer & Leader 행동하는 사람 임지락의 질문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읽는 자(Reader)'와 '이끄는 자(Leader)'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치가 질문과 응답, 소통과 공감 속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저를 아는 분들에게는 제 진심을,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화순의 미래와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임지락 의원

다"며 "읽고, 묻고, 이끄는, 응답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는 이끄는 자이면서 동시에 읽는 자이며, 시민의 질문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인다"며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군민과 함께 확인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출간 소회를 전했다.

한편 임지락 의원은 현재 화순 출신 도의원이며, 제5·6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기초의원, 3인→2인 환원…소수정당 '오해'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종료…시 "정원 축소 아니다" 설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자치구의 원선거구화위원회가 5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소수정당이 '기초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소수정당들은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역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적용됐다가 종료되면서 환원된 것으로, 사실상 변동은 없는 셈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4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3인을 선출했던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비야·신가·신창동)를 2인 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에 대해 확정위가 정당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확정위는 2인 선거구 확대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 광주시가 2인 선거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적 접근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3~5인 선거구)에 적용되면서 3인으로 늘었다가 다시 정원이 환원됐을 뿐, 기초의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